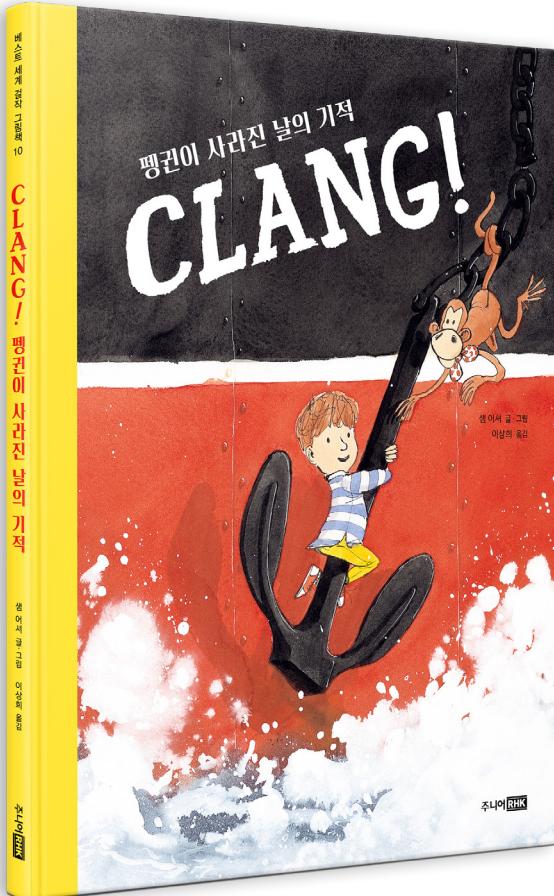


주니어RHK 독서 활동지 《CLANG! 펭귄이 사라진 날의 기적》

현직 초등교사 집필 ·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 수록



샘 어셔의 <기적> 시리즈 속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에는 인생 철학이 담겨 있다.

—구선아 (『한 줄도 좋다, 그림책』 작가, 책방연희 대표)

『CLANG!』은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고 따뜻하게 그렸다.

—랭커셔 이브닝 포스트 (영국 일간지)

글이 많지 않아 독자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게 한 여유와 차분함이 어른들도 좋아할 만하다.

—국내 독자 서평 중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흥미로운 경험!
샘 어셔의 <기적> 시리즈!

—국내 독자 서평 중에서

CLANG! 펭귄이 사라진 날의 기적

샘 어셔 글·그림 | 40쪽 | 15,000원 | 초등 저학년 이상 | ISBN 978-89-255-7324-3 (77840)

교육과정 연계 (해당 학년·과목·단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통합	탐험	1통합	이야기
2-2 국어	6. 매체를 경험해요	2-2 국어	8. 나도 작가
3-1 도덕	1.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3-2 국어	6. 감상과 표현의 즐거움

현직 초등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아이들과 함께 샘 어셔의 그림책을 읽을 때면 일상이 환상적인 모험으로 변하는 기적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 일 없을 것 같은 일상에서 출발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는 놀랍도록 확장되고 풍부해지니까요. 아이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작해, 특별한 모험을 보여주는 것이 샘 어셔 그림책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특히 주도권이 어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시선과 상상력이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는 점이 감동적입니다. 날씨, 계절, 일상이라는 친숙한 소재를 통해 아이들은 끝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어른들은 어느새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서로의 시선을 나누고 세대를 잇는 대화로 이어지지요.

이번 열 번째 이야기 『CLANG! 펭귄이 사라진 날의 기적』 역시 독자에게 특별한 울림을 전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보니 펭귄이 사라져 버렸다는 단순한 사건에서 이야기는 출발합니다. 주인공과 할아버지는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펭귄을 찾아 나서고, 결국에는 남극까지 모험을 이어 갑니다. 이 모든 여성의 중심에는 ‘사라진 펭귄’이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자리하지요. 이야기의 마지막에 다다르면 독자는 ‘세상에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야 할 만큼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아이와 어른 모두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묻게 되지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하고요.

이 책은 단순히 흥미로운 모험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작은 “CLANG!”이라는 소리와 펭귄이라는 독특한 소재가 흥미를 불러일으키지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자신만의 모험을 정리하고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나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며 나만의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아이들이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느끼며 스스로에게 삶의 가치와 의미를 묻도록 이끌며,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읽는 순간은 물론이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책이 선사하는 또 하나의 기적 같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최유라(괴산 감물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과 책을 만드는 선생님입니다. 아이들과 오랫동안 책으로 수업하고, 책을 만든 과정과 결과를 SNS와 강의를 통해 선생님과 양육자에 공유하며 교실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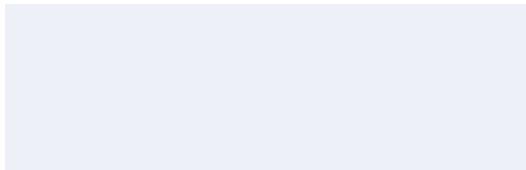
- 『그림책으로 마주하는 아이 마음』 저자
- 충북, 충남교육청 초등1급 정교사 자격 연수 포함 전국 교육청 ‘그림책 활용 교육’ 연수 강사

미션 ① 표지 살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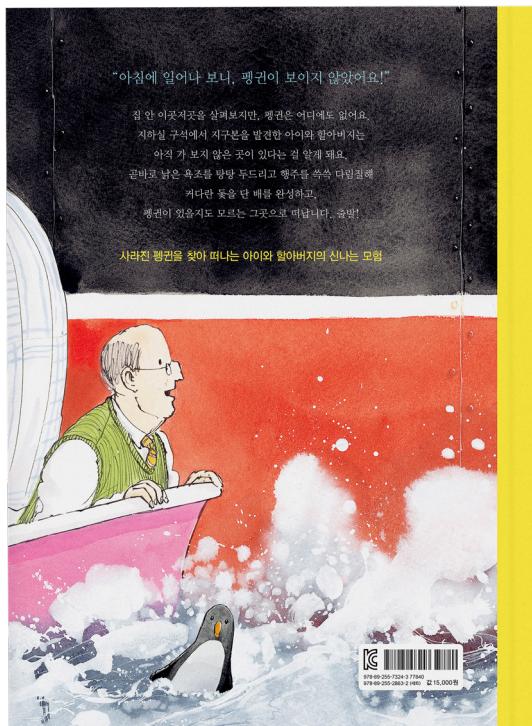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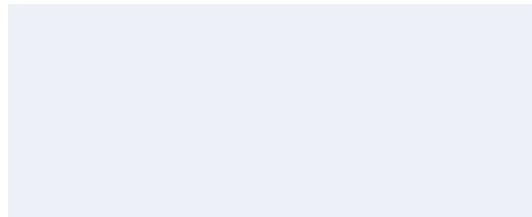


표지 그림과 제목을 살펴보며 질문에 답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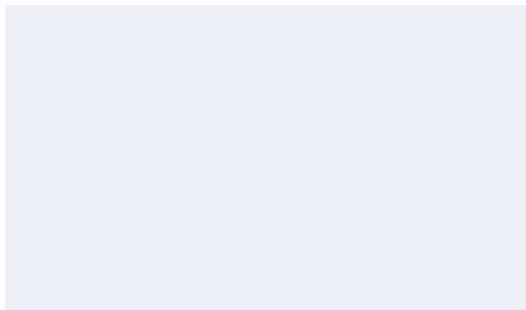
1. 'CLANG'은 금속이 부딪치는 날카로운 소리예요. 표지를 살펴보며 'CLANG'이 어떤 소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일지 생각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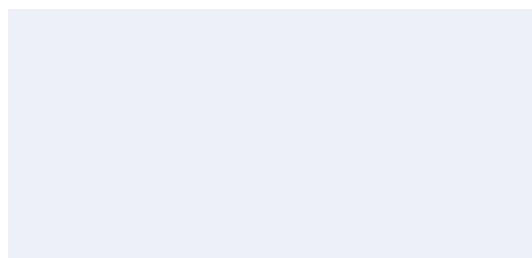
2. '펭귄이 사라진 날의 기적'이라는 제목을 보고 왜 펭귄일지 생각해 봅시다.



3. 표지에 누가 등장하나요?



4. 제목과 그림을 함께 보며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상상해 봅시다.



미션 ② 문제를 해결하며 그림책 읽기



그림책을 읽으며 1~3단계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봅시다.

1단계 OX 퀴즈!

책에서 본 장면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해 봅시다.

- ① 주인공 아이는 할머니와 함께 모험을 떠났다. (O , X)
- ② 해적들이 펭귄을 잡아 두고 있었다. (O , X)
- ③ 잠수함 함장이 지도 한 장을 건네주었다. (O , X)
- ④ 마지막에 펭귄을 찾은 곳은 남극이었다. (O , X)

2단계 낱말 퀴즈!

책을 읽고 퀴즈를 풀어 봅시다.

- ① 주인공 아이와 함께 떠난 가족은? ()
- ② 배 바닥에 세운 기둥에 단단히 매어 단 넓은 천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
- ③ 주인공들이 지구본을 보고 떠난 곳은? ()
- ④ 해적들이 건네준 것은? ()



3단계 문장 완성 퀴즈!

빈칸을 채워 책 속에 나오는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 ① “할아버지, 펭귄이 ()에 있을까요?”
- ② “실례합니다. 혹시 우리 ()을 보신 적 있나요?”
- ③ “세상에는 지구 끝까지 찾아갈 만큼 () 게 있다는 걸요.”

정답은 5쪽에 있습니다.



미션 ③ 이야기 한눈에 정리하기



이야기를 장소와 단서, 펭귄을 찾았는지 여부에 따라 정리해 보고
각각의 상황에서 주인공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추측해 적어 보세요.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펭귄을 찾았나요?

(혹시 다른 것을 찾았다면
무엇인지 적어 보세요.)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다에서
해적들을 만났어요.

아니요.

펭귄이 아니라 판다였어요.

미션 ④ 사라진 펭귄이 되어 일기 써 보기



아이와 할아버지는 늘 함께 모험을 떠났던 펭귄을 찾아 떠나요.
이번에는 사라진 펭귄의 입장에서 일기를 써 볼까요?



미션 ⑤ 나만의 이야기 만들기(1) 이야기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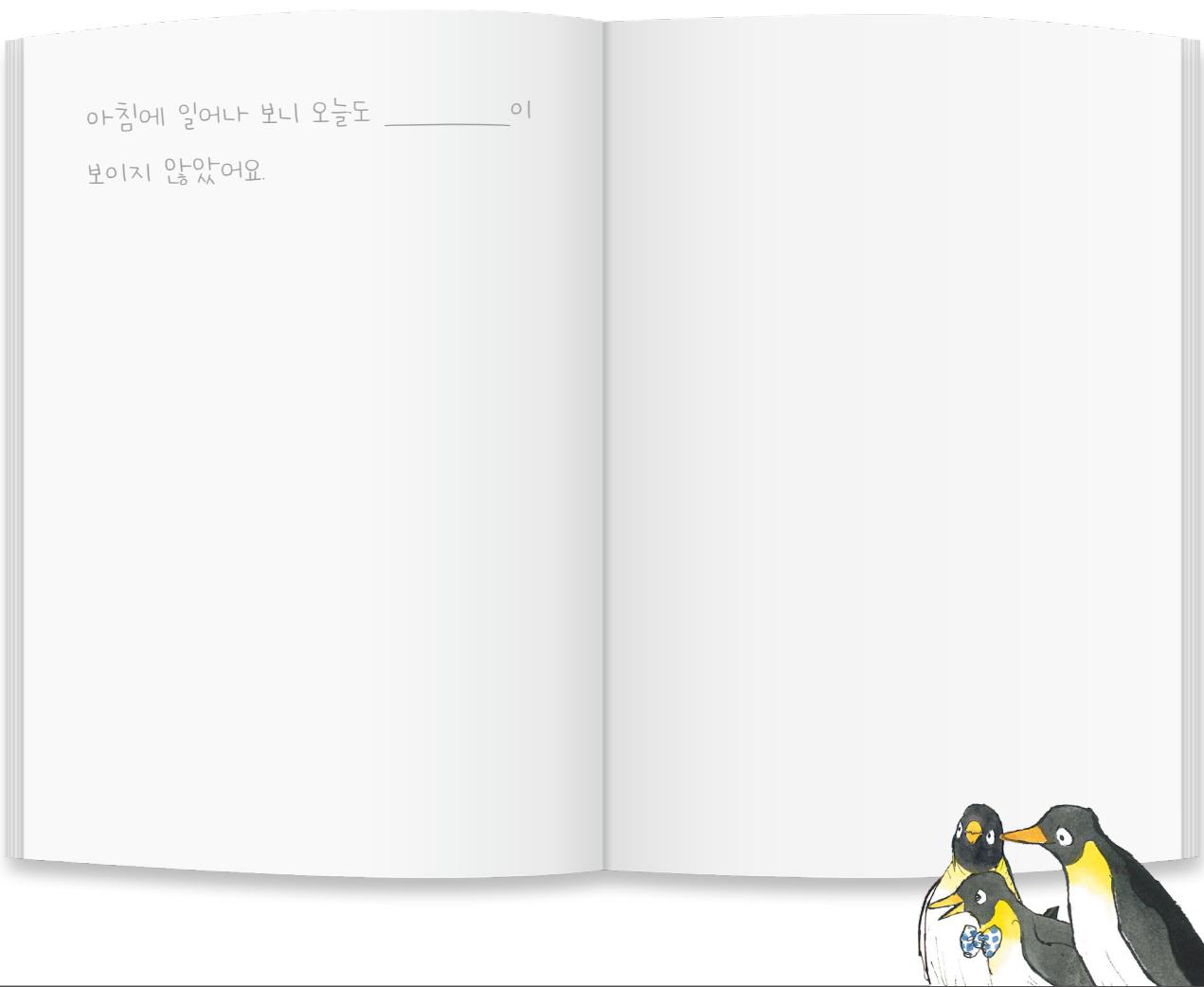


나만의 기적 이야기를 담은 책을 만들어 볼까요?
아래 물음에 답해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 잃어버린 것(또는 갑자기 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_____
- 누구와 모험을 떠나나요? _____
- 모험을 떠나 어디를 여행하게 되나요? _____
- 잃어버린 것(또는 갑자기 사라진 것)을 어디에서 찾게 되나요? _____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오늘도 _____이

보이지 않았어요.





미션 6 나만의 이야기 만들기(2) 표지 편



미션 5에서 만든 이야기를 바탕으로 표지를 만들어 봅시다.

이(가) 사라진 날의 기적

1. 원래 표지의 'CLANG!' 자리에는 내가 모험을 시작할 때
났으면 하는 소리로 바꿔 봐요. (예: 뽕! 뽕! 콩! 띠링! 등)

2. 펭귄 대신 내가 끝까지 찾아야 할 소중한 존재,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제목에 넣어 봐요.

3. 책 제목에 맞는 그림을 자유롭게 그려 표지를 꾸며 보세요!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

아이와 할아버지의 모험을 그린 다른 <기적> 시리즈를 읽고 싶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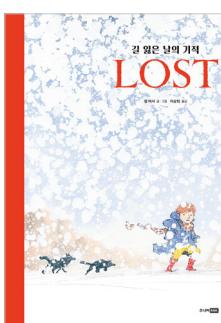
《SNOW 눈 오는 날의 기적》

《RAIN 비 내리는 날의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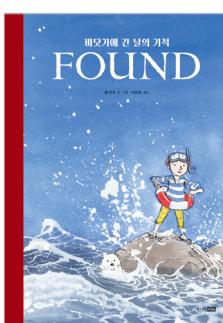
《SUN 햇볕 펑펑한 날의 기적》

《STORM 폭풍우 치는 날의 기적》

《WILD 고양이와 함께한 날의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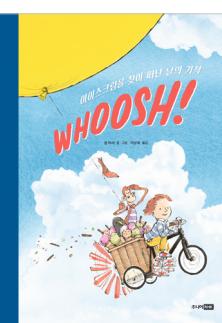
《LOST 길 잃은 날의 기적》



《FOUND 바닷가에 간 날의 기적》



《ZOOM! 우주로 간 날의 기적》



《WHOOSH! 아이스크림을
찾아 떠난 날의 기적》

샘 어셔 글·그림

작가 샘 어셔의

다른 그림책을 읽고 싶다면?



《내 자전거가 좋아!》

사이먼 몰 글 | 샘 어셔 그림

할아버지와 동물들의 우정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을 읽고 싶다면?



《아모스 할아버지가 아픈 날》

《아모스 할아버지가 버스를 놓친 날》

《아모스 할아버지의 눈 오는 날》

필립 C. 스테드 글 | 에린 E. 스테드 그림